

# 춤을 사랑한 조선의 왕 - 효명세자

김 말 복

이화여대 교수, 한국무용예술학회 회장

---

I. 머리말	정재
II. 효명세자의 생애	VI. 무용의 진경문화형성에 끼친
III. 효명의 정치이념과 배경	효명의 역할
IV. 효명의 무용정치	참고문헌
V. 효명이 주최한 연향과 창작한	Abstract

---

## I. 머리말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는 조선조 역대 국왕 중에 가장 예술적 학문적 조예가 깊고 뛰어 났으며 무엇보다도 춤을 사랑한 왕이었다. 그는 조선후기 한창 세도정치가 기세를 올리기 시작한 순조 조 왕권을 강화하고자하는 순조의 염원과 기대를 한 몸에 지고 부왕의 명을 받들어 대리청정을 하였다. 3년 3개월에 불과한 그의 짧은 대리청정기간동안 그는 왕실의 위엄을 보이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여러 차례의 큰 궁중연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궁중의식과 춤을 왕권 강화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수단으로 다루어 효율적으로 안동 김씨세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장치로 활용하였다. 대리청정 3년차에 접어들면서 그는 당시 권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변사를 성공적으로 장악하고 안동 김씨의 유력자들을 정계의 핵심에서 물러나게 하여 세도정치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등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마련하여 왕실이 중심이 된 정치질서개혁의 노력이 가시화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의 이러한 정치적 성과는 궁중의식과 예법을 다루는 무용정치와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대청기간 중 여러 차례 궁중연향을 개최하여 여러 정재무(呈才舞)를 직접

대거 창작하였을 뿐 아니라 의식 절차와 구조를 왕실의 위엄을 드높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그 절차를 성대하게하고 화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연향에 쓰이는 악장(樂章)과 치사(致詞)들을 당대 문인(文臣)들이 창작하던 것을 효성이 지극하고 부왕 선조에 대한 경외감 또한 남달랐던 효명 자신이 직접 창작하고 써서 '예제(饗製)' 하였을 뿐 아니라 연향에서 추어질 궁중 춤을 정비 확충하고 여러 연향들을 직접 관장하였다. 그는 정재와 궁중연향을 자신의 예악정치의 수단으로 삼아 조선조 사상 가장 풍부한 레파토리의 수준 높은 정재를 지니도록 하였으며 한층 격조있고 장대한 연향으로 양식화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조말까지 전해지는 50여종의 정재 중 20여종이 넘는 정재들을 직접 예제하고 가사와 내용 그리고 형식을 다듬어 한층 격조 있고 자주적인 조선 궁중 춤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자신이 대리 청정한 3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궁중 정재의 수준을 끌어 올려 정재를 왕궁문화의 꽃으로 만들고 조선조 궁중 춤의 절정기를 이루었다. 나아가 강력한 왕권을 염원한 그의 존주적 정치 이념과 마찬가지로 그의 무용정책도 역시 자주적 이어서 공연 구성과 형식에 있어서 당악정재와 향악 정재의 차이를 없애고 향악정재의 비중을 늘리며 조선적 주제를 들여오는 등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춤의 진경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춤이 지녔던 정치적 영향력과 힘을 잘 이해하고 이를 사랑한 효명세자가 조선조 나아가 우리나라 무용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는 가히 전무후무한 업적이라 하겠다. 이에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2005년도 11월 이달의 무용분야 문화인물로 효명세자가 선정된 것은 그의 업적을 늦게나마 기리는 일이라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다. 이를 계기로 일반인들이 오천년 가무민족의 후예인 우리나라에도 춤을 사랑한 효명세자와 같은 왕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효명세자와 같은 성군의 자질을 갖추고 그와 함께 뛰어난 예술적 안목을 지닌 왕의 애석한 죽음은 우리나라를 위해 매우 불행한 손실이었다. 그의 사후 안동 김문의 외척 세력은 다시 살아나 조선조를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기에 그가 만수를 누리 오랫동안 집정하였다면 조선의 역사는 오늘날과는 사뭇 달라졌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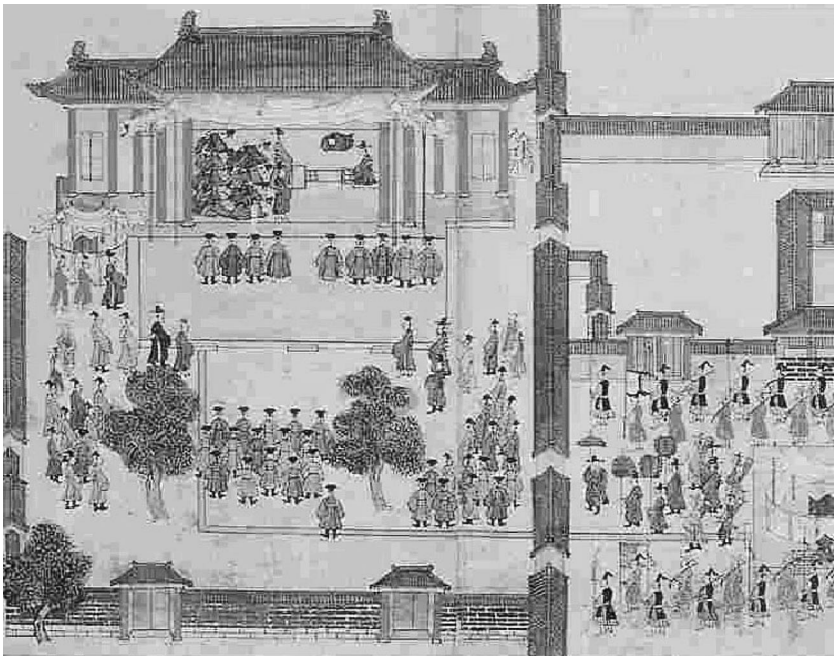
## II. 효명세자의 생애

효명세자는 조선 제 23대왕인 순조(純祖) 9년(1809) 8월 9일 창덕궁 대조전(大造殿)에서 순조와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김조순의 딸) 사이에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휘(諱)는 영(吳)이고 자(字)는 덕인(德寅), 호(號)는 경헌(敬軒)이며 그의 사후 그의 아들인 헌종(憲宗)이 즉위한 후에 익종(翼宗)으로 추존되었으며 1899년 고종에 의해 다시 문조익황제(文祖翼皇帝)로 추존되었다. 휘란 생전의 이름을 뜻하는데 ‘영’의 뜻은 햇빛을 의미한다. 이는 효명보다 반세기전 지구 반대편에서 살았던 프랑스의 춤을 사랑한 왕 루이 14세의 별명이 ‘태양왕’이었던 점을 연상케 하며 둘 다 춤을 사랑하고 햇빛과 태양이라는 명칭을 지닌 묘한 공통점을 지녔음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효명이 태어나기 전 “순원왕후의 꿈에 용이 나타났으며 그가 태어날 즈음에는 오색의 무지개가 궁정에 드리우고 소나기와 우뢰가 치더니 그가 태어나자 하늘이 즉시 개이고 궁전의 기와에 오색의 기운이 머물렀다가 권초일(捲草日, 왕비의 산실에 깔았던 자리를 걷어치우는 날)에 이르러서야 흩어졌다고 한다.”<sup>1)</sup> 세자는 이마가 융기한 귀상(貴相)에다 용(龍)의 눈동자로 제왕의 모습이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므로 궁중의 상하가 모두 ‘장효왕(정조)과 흡사하다’라고 하였다 한다. 그는 순조 12년(1812) 7월 4세의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9세인 17년(1817)에 성균관에 입학하고 11세인 19년(1819) 3월에 관례(冠禮)를 행하고 그해 10월 풍양 조씨 판서(判書) 조만영의 딸과 가례(嘉禮)를 올렸다. 그가 성균관에 입학할 당시 박사(博士) 앞에 나아가 배우기를 청하면서 ‘무엇을 닦아야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영특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물어 그의 높은 향학열을 드러내었다고 한다. 이렇듯 그는 어려서부터 천품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인효(仁孝)하며 풍채가 준수하여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고 순조의 지극한 사랑과 기대 속에 신료들이 장차 현군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던 성군의 재목(材木)이었다.

그는 총명이 과하여 네 살때 흥경래란이 평정되었다는 보고를 듣고서 유모 품에서 ‘도적이 사로잡혔는데 어찌 불쾌할까’며 쾌호재를 부를 정도였으며 그의 총명함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3). 『순조실록 12』, p. 262.

은 나이가 들어감에 더욱 더 돋보여 국조(國朝) 열성조(列聖祖)의 성덕에 관하여 물으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척척 대답하였다고 한다. 세자는 5세에 천자문을 배웠고 6세에 효경을 그리고 7세에 소학과 중략을 사부 김재찬에게 사사받았다. 순조는 세자 나이 4세에 당시 좌의정이었던 김재찬을 영의정으로 삼고 세자의 사부로 명하였다. 김재찬은 이 시기 김조순의 안동 김씨세력에 대항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11세에 비로소 『논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영의정 서용보가 “왕세자의 학문이 날로 성취되고, 환관과 궁첩을 싫어하며 잠자고 먹는 것 이외에는 강학을 배워 묻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라며 그의 면학분위기를 칭송하는 기록(순조 19년)이 있다. 어린 시절 세자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6세에 7개월간에 걸쳐 보신제와 해열제, 기침, 감기약, 위장약 등 각종 약을 복용하였고 11세에 마마를 가볍게 앓았다. 그리고



〈그림 1〉 익종 대왕 입학도

1817년 3월 11일, 성균관 명륜당 안 오른쪽에 홀로 앉은 이가 박사이고 그 앞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세자가 자리하고 있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www.kci.go.kr

22세 때인 순조 30년 3월부터 5월 6일 사망 시까지 40여회나 각종 약을 복용하였는데 그 약들은 6세 때와 비슷한 감기, 기침, 해열, 위장, 소염 등의 약이었다.

그는 순조 25년 여름부터 대청이 끝날 때까지 두 살 연상인 박구수(朴珪壽)와 같이 친교하고 담론하기를 즐겼다. 박구수는 박지원의 손자로서 7세에 『논어』를 읽고 한시를 읽어 주위를 놀라게 할 정도의 인재였다. 세자는 경우궁(景祐宮) 후원에 잇대어 있는 계동 박구수집에 자주 들러 야심토록 담론하고 독서하였으며 그가 대리청정을 맡게 되면서 이들의 교류는 더욱 긴밀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세자는 박구수로 하여금 연암 박지원의 사상을 정리하도록 명하여 『연암집(燕巖集)』을 지어 올리도록 하였다. 따라서 세자는 연암의 사상에 관심을 가졌으며 야심토록 이루어진 토론 중에 연암의 북학사상과 이용후생(利用厚生) 이론 등에 경도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박구수는 세자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크게 충격 받아 출세와 과거를 포기하고 근 20여년간 칩거하며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리고 효명세자의 효성의 지극함과 형제애에 관하여는 순조실록(30년 7월)에 많은 기록들이 있다. 그는 순조의 비할데 없는 사랑을 받았으며 그 또한 부왕을 몹시 사랑하였다. 그가 아무리 좋아하는 놀이라도 모비(母妃)가 금하면 중단하며 어머니에게 효도하였다. 그리고 그는 시 짓기를 좋아하여 급서하기 전까지 400여수의 시를 남기고 있다. 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고 얘기되는 정조대왕의 시가 200여제가 되지 않았음에 비추어볼 때 역대 국왕들 중 문학적 성취가 가장 높았으며 '문학적 감수성과 시적 형상화의 수단이 역대 군왕 중 단연 으뜸이라 할만하다'<sup>2)</sup>고 한다. 그의 이렇듯 뛰어난 문학적 역량은 그가 대리청정기간동안에 주축한 여러 연향에서 직접 무용 반주음악 가사를 짓고 치사를 지어 올리는 일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의 작품 세계는 궁궐의 여러 정자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맑은 기풍으로 서정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순조가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한 것은 1827년 2월의 일이지만 순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효명세자에게 기대를 갖고 안동김씨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한 자신의 염원을 이들을 통한 대리청정을 통해 이루고자 구상해왔던 바였다. 순

2) 이종목(2002). 효명세자의 저술과 문학, 『한국한서연구』, 10권, p.316.

조는 이미 당시 유일한 반 척족 세력이자 안동 김문에 대항하는 김재찬을 효명의 사부로 임명한 바 있으며 그로부터 이미 1821년 10월 세자에게 효희전(孝禧殿)의 제사를 대신하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1823년 겨울에는 종묘와 사직의 모든 향사(享祀)를 세자로 하여금 지내도록하고 1823년 5월에는 세자를 궁중의 공식행사와 자신이 신하들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시켜 정치적인 분위기를 익히도록 하고 세자의 핵심관료를 이미 대리청정이전부터 동궁에 배속시켜 장차 효명의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효명세자 역시 1826년부터는 자신이 좋아하던 시 짓는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경세를 위한 학습에 몰입하는데 1827년 정월에는 새로운 각오로 학문에 임할 것임을 스승에게 밝히고 세종(世宗)을 모범으로 삼아 『소학(小學)』을 주 텍스트로 독서에 몰입하고 하루 세 번 반드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세자궁의 사부들에게 대기하라고 명하는 등 새로운 각오로 학문에 힘썼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데 순조의 대리청정 의향은 미리 세자에게 통지되었던 사실인 듯 하며 아니면 부왕의 정치현장을 참관하면서 순조의 왕권강화에 의지와 필요성을 왕세자 자신이 실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왕세자는 순조 27년 2월 18일부터 30년 5월 6일 급서하기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대리청정 하였다. 순조의 대리청정 결정에 대하여 조신들 역시 영민하고 호학의 성격인 세자의 혁신 정치에 대한 기대가 커서 세종 조와 영조대의 대청에 대해 격심하게 반대하였던 전례와는 달리 그 조치를 기뻐하며 하례를 올렸다. 효명은 30년 3월 3일 발병하여 2개월 여 만에 별세하였는데 그의 죽음에 대하여는 당시에도 의혹이 많았으며 그의 사후 약원제조를 논죄하여야 한다는 상소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30년 4월 21일 각혈을 한지 십 여일 만에 죽었다. 30년 4월 22일 의관과의 대화를 기록한 『대청시일록(代聽時日錄)』에 따르면 효명은 ‘며칠 전부터 감기에 걸려 끝내 정상을 찾지 못하다가 어제 밤 2경경에 갑자기 한 사발쯤 각혈을 하였고 오늘 해뜰 무렵에 또 한 차례 각혈하였으나 조금 나아졌다’ 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왕세자는 호흡기계통의 질환을 겪고 있는 듯 한데 감기약과 위장약 등을 복용하였으며 5월 5일 약원이 인삼을 과용한 탓인지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 따라서 왕세자는 대리청정의 격무에 시달려 어릴 적에 앓았던 호흡기질환이 재발하여 운명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의 급작스러운 죽음의 애석함이 조선 역대 의문사한 왕들의 리

스트에서 그의 죽음이 빠지지 않는 이유인 듯 하다. 세자는 순조 30년(1830년) 윤 4월 22일부터 각혈하기 시작하여 12일만인 5월 6일 22세의 나이로 창덕궁(昌德宮) 희정당(熙政堂)에서 숨을 거두었다.

왕세자는 사후 효명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는데 시호란 왕의 일생을 평가하고 생전의 업적을 심판하여 후계 왕과 제상들이 지어서 올리는 죽어서 남기는 이름이다. 따라서 효명이라는 시호는 그가 왕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평가이다. ‘효명’의 의미는 뜻을 이어 사업을 이루었다는 뜻에서 ‘효(孝)’, 사망에 비춘다는 뜻의 ‘명(明)’이라 하여 순조의 정치적 뜻을 받들어 이루고 널리 알렸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그의 아들 헌종(憲宗)이 즉위하는 원년에 다시 시호를 추승하여 종문현무인의효명대왕(敦文顯武仁懿孝明大王)이라 하고 익종(翼宗)으로 추존되었으며 고종에 의해 문조익황제(文祖翼皇帝)로 추존되었다. 종묘에 모신 신주의 이름인 묘호(廟號)는 문호(文祐)이고 능호는 수릉으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있다.

그는 실제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지만 그의 시호에서 알 수 있듯이 대리청정기간 동안 아버지 순조의 정치적 염원을 거의 가시화하는 탁월한 정치적 역량을 증명해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방대한 저술들이 왕들의 저술들만 기록되는 『열성어제(列聖御製)』로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가 실질적으로 국왕이었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순조의 강력한 왕권에 의지는 또 한번 좌절하게 되고 이후 순조는 정치에 완전히 관심을 끄고 이어지는 공주들의 죽음으로 즐거움이 없이 실의(失意)속에 살았다. 그만큼 효명은 순조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 III. 효명세자의 정치이념과 배경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한 19세기전반은 조선시대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할 때 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세도정치로 말미암아 정치질서가 붕괴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체제가 와해되고 농촌사회가 동요하는 시기였다. 15세기 왕권의 확

립과 16세기 사림(士林)의 등장과 사화기(士禍期)를 거쳐 17세기 서원을 근거로 한 사림들의 봉당정치와 왜란과 호란을 지나고 18세기에 이르러 영, 정조의 탕평책과 중흥정치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 문예부흥을 이루며 안정되어가던 조선 사회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로 흔들리게 되었다. 세도정치의 시작은 정조 때의 홍국영(洪國榮)에서 비롯되었으나 본격적인 세도가 시작된 것은 어린 순조를 대신해서 장인 김조순이 정권을 잡을 때부터이다. 어린 순조를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하게된 정순왕후가 순조 1년(1801년) 천주교 박해령을 선포하여 5백여 명의 희생자를 낸 신유박해는 사교를 뿌리 뽑아 나라의 기강과 윤리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아래 정적인 남인 시파와 진보적인 사상가들을 제거하는 정치적 숙청이었다. 신유박해 이후 남인 시파를 완전히 제거하고 벽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일당 독재인 외척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다. 세도정치(勢道政治)란 탕평정국 속에서 왕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외척세력이 ‘世道(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길)’를 자처하며 권력을 독점한 정치형태였다.

순조는 1802년 김조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는데 이 국혼이 바로 안동 김씨 60년 세도의 시작이었다. 순조가 11살의 나이로 등극할 당시 왕조의 기운이 쇠약해지고 나라의 기강마저 약해지는 상황에서 어린 순조는 김조순과 외조부 박준원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효명이 태어나자 왕자의 나이 4살이 되는 1812년에 세자로 책봉하였고 당시 안동 김씨세력과 대항한 유일한 인물인 김재찬을 효명세자의 사부로 임명하였으며 1819년에는 안동 김씨를 견제하기 위해 풍양 조씨 가문 조만영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았다. 순조는 친정 초기에는 약화된 왕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친위관료의 양성과 군사권 장악에 관심을 표명하며 국정을 주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순조의 군권 장악 노력은 안동 김세력과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순조는 자신의 정국주도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로 외삼촌 박종경과 외척정치에 비판적이었던 김재찬, 이서구 같은 인물에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이들 만으로는 당시 안동 김문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순조는 1823년부터 대리청정을 준비하여 세자에게 궁중의 공식 행사와 정무처리에 참관시키고 향사를 주관하게 하고 자신이 신임하는 관리들을 동궁

부속으로 배치시켜 세자의 강학(講學)과 보도(輔導)를 담당케 함으로써 장차 세자 대청기의 핵심적인 정치세력을 육성하는 정치적 배려를 하였다. 부왕 순조가 신하들과 만나는 자리에 배석하여 정치적 분위기를 배워던 왕세자로서는 자신의 대청기간 동안 순조의 뜻을 받들어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따라서 한창 나이인 38세에 표면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당시 19세의 개혁 성향이 있었던 왕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한 순조의 의중은 안김 외척세력의 울타리를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려던 자신의 노력이 여의치 않게 되자 대청이라는 비상조치를 통해 안김 견제와 왕권강화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오랜 준비 끝에 나온 정국전 환용의 정치적 기획이었다.

순조 27년 2월 9일 대청의 명을 받은 효명세자는 2월 18일 인정전(仁政殿)에서 하례식(賀禮式)을 마친 후 정무를 시작하였다. 대리청정 나흘만인 2월 22일 세자는 하례식의 절차가 의례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안동 김씨계열인 전임 이조판서 이희갑, 김재창과 현임 이조판서 김이교를 감봉 조치하여 안동 김씨 견제의 칼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그의 대리청정 초반 자신을 길들이려는 조정의 대간들과 삼사와 맞서 강인한 군주의 위엄을 보여주었다. “효명세자는 집권하자 우선 소론이 노론을 죽인 ‘신임사회’는 소론이 노론을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이라는 1776년 영조가 정리한 ‘신임의리’를 재천명하였다. 이어 세자는 청의(淸議)를 내세우며 그동안 척족들의 정치에 반대하였던 노론 인사와 관련된 인물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새롭게 재편하였다.”<sup>3)</sup> 그리하여 효명세자의 대청과 함께 안동 김씨세력과 풍양 조씨 세력간의 권력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효명은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핵심 정치세력 육성에도 발 빨랐다.

효명세자의 가장 핵심적인 측근들은 김재창의 조카인 김로와 이인보, 홍기섭, 김노경이며 효명은 이들에게 이조와 병조의 인사권과 경제권을 맡겼다. 이외에 자신의 처가인 풍양 조씨 조만영, 조인영, 조종영, 조병현이 세자를 측면에서 후원하는 또 다른 세력이었다. 그리고 당시 안동 김씨 외척세력의 권력의 핵심기반은 비변사와 규장각이었는데 효명은 이를 효과적으로 장악하여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요직

3) 이성무(1998). 『조선왕조사』, (서울: 동방미디어), p.941.

을 담당토록 하였다. 규장각의 각신(閣臣)들을 김로, 서준보, 서희순 등 세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안동 김씨를 반대하는 인사들로 임명하였고, 19세기 세도정치 권력의 가장 핵심기구랄 수 있는 비변사 역시 김노경, 조종영, 조만영, 홍기섭, 박종훈, 김로, 조인영 등 자신의 측근세력들로 배치하여 비변사를 장악하였다. 효명세자는 김조순에 의해 권력의 중심에 있던 비변사를 견제하기 위해 주좌법을 시행케 하여 비변사제 당상이 정사를 태만히 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변사 당상 모두를 감봉 조치하는 전례 없는 왕권강화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김조순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소론, 남인, 북인 세력을 사헌부와 사간원의 언관으로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안김계 핵심인물의 사취와 권귀성(權貴性)을 공격토록 하여 공론에 따라 축출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취하여”<sup>4)</sup> 세자 자신이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고 대청 4개월 만에 심삼규, 김유근, 김교근 등 안김계의 핵심인물들을 정계에서 축출시키는 뛰어난 정치기술을 보였다.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소론, 남인, 북인들인 이면승, 심영석, 한진호, 강태중, 임존상 등은 대리청정을 계기로 등용되어 안동 김씨 주요 인사들의 비리를 들추어내어 그들을 정계에서 축출하는데 앞장섰다. 그리하여 1829년에 이르러 효명세자는 안동 김씨 출신의 좌의정과 영의정을 물러나게 하고 김교근, 김유근 등 안동 김씨 유력자들을 정계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자신의 측근 세력들로 왕권을 강화하는 권력 기반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1829년 10월에는 좌의정이 사퇴한 가운데 세자가 직접 국무를 처리할 만큼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이루었다.

세자의 핵심관료는 ‘영조 말에서 정조 연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척족 정치에 비판적이었던 노론계 청명당(淸明黨) 세력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sup>5)</sup>이다. 청명당의 정치적 이념은 사류(士流)와 청의(淸議)를 표방하면서 사림(士林)의 공의(公議)를 존중하고 청명을 지켜 척신(戚臣)의 전횡과 사리추구를 견제, 비판하는 것이었으며 이로써 안동 세도정권과의 차별성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효명세자는 노론의 신임의리를 인정해준 가운데 척족정치에 비판적이었던 노론 청류세력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두었던 것이다.

4) 김명숙(1997). 19세기 반외척세력의 정치동향, 『조선시대 사학보』, 3권, p.176.

5) 앞의 책, p.181.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효명세자는 정책적으로 우문정치(右文政治)와 위민정치(爲民政治)를 표방했던 정조대의 정치를 계승하고자 하였으며 해이해진 왕조의 기강(紀綱)을 바로 잡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효명세자는 부왕(父王)때 무란해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엄정한 의리론(義理論)을 펼쳤다. 세자는 기강확립과 체통을 존중하는 것과 근경에 처한 자를 동정하는 것을 의리로 보고 의리를 부양하면서 의리에 벗어나는 일을 엄히 다스렸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조 27년 3월 대청에 임하면서 가장 먼저 왕실의 제사인 일무(佾舞)의 착란(錯亂)을 시정하였다(순조 실록 28권, 27년 3월). 그리고 왕실 행사로서 그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원손(元孫) 탄생을 계기로 순조의 존호(尊號)를 올리고(27년 7월), 순조의 등극 30주년과 40수를 기념하는 성대한 왕실 잔치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왕실의 체통과 권위를 튼튼히 하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하는 취지에서 경복궁 중건 계획 또한 추진하였다. 경복궁 중건은 그의 대청 기간 동안에 실행되지는 못하였지만 효명이 박규수에게 그에 관한 계획을 피력한 바 있고 고종이 익종의 후사로 입적된 후 대원군이 익종의 유지(遺志)를 잇는다는 명분 하에 경복궁을 중건한 점이 효명의 의지를 뒷받침 하고 있다.

그리고 효명은 정조와 마찬가지로 경기 일원에 위치한 역대 왕들의 능을 자주 참배하였으며 이를 민심 파악과 군사훈련의 기회로 삼았다. 세자는 능행 시에 군복을 입고 행차하였으며 야간 훈련도 실시하는 등 이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권을 장악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와 더불어 당시에 극심하였던 과거 제도의 부정과 과장(科場)의 비리를 척결하고자 노력하여 그의 대리청정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공직자들의 술선수법과 엄중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지시와 독려를 잊지 않았다. 당시 세도 가문에서 시관(試官)과 과장을 장악하고 시험문제를 미리 빼내어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보게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지와 바꿔 내게 하는 등 온갖 부정행위를 저질러 특정 가문 출신이 아니면 과거에 합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청기간 내내 효명세자는 여러 부문에서 세도가문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고 척신들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과거제로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당시 일반 백성들이 국왕에게 청원하는 방식이던 상언(上言)과 격쟁(擊錚)등의 소원제도의 수도 대리청정기간동안 473건이나 되

는 많은 수였으며 그중에서도 절반이상이 대청 첫 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효명세자의 대청에 거는 일반 국민들의 기대가 컸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효명세자 자신도 부왕과는 다른 혁신적인 정책을 자신의 규범으로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효명의 대리청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3건의 패서(掛書)사건도 효명의 인애(仁愛)우민정치와 의리에 바탕을 둔 민심수습의 노력을 반영하여 이전의 패서 내용과는 다른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이전의 패서들은 대개 국가사회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으나 대청 기간 동안에 있는 세 번의 패서 내용은 모두 개인 간의 사적인 감정을 푸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익종의 대청에 대하여 백성들도 많은 기대와 함께 차츰 민심이 안정되어가기 시작한 증거로 보인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진 인재를 등용하고 형욕을 신중하게 하는 등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자한 효명은 그의 젊은 혈기로 안동 김문을 향한 칼날이 너무 예리했던 탓인지 요절을 하고 말았다. 효명세자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짧은 치적은 그의 의욕적인 정치적 의지가 결실을 맺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의 사후 풍양 조씨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은 좌절되고 안동 김씨 세력이 별뿔처럼 일어나 김로, 김노경, 홍기섭, 이인보 등을 대리청정기의 '사간신(四奸臣)'으로 몰아 그들을 모두 유배시켰다. 그러나 1834년 현종이 즉위하자 세자를 도왔던 인물들도 거의 복권되고 풍양 조씨 세도가 다시 전개되었다. 그의 죽음은 대리청정이라는 비상정국을 통하여 외척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한 순조의 또 한번의 정치적 좌절이었을 뿐 아니라 효명을 계기로 결집되기 시작한 반 외척 세력의 좌절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세도정치의 그늘을 뚫고 정치 문화적으로 국왕권의 강화를 꾀했던 효명에 이어 그의 아들인 8세의 어린 왕 현종(1834-1849)이 즉위하면서 왕실의 권위는 더없이 추락하였다.

#### IV. 효명의 무용정치

효명은 왕권이 중심이 되는 정치 질서를 확립하고 존왕 의식을 통한 왕권회복의 의지를 피력하는 여러 차례의 큰 궁중 연회를 개최하였다. 사실 그의 짧은 대리청정

기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라면 바로 순조를 위해 큰 규모의 궁중연향을 개최하고 직접 주도하면서 그에 필요한 정재를 새롭게 정비하여 조선조 정재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연향의식절차에서 필요한 여러 악장(樂章)과 치사(致詞), 전문(箋文)들을 당대 문인들이 담당하던 것을 직접 예제(睿製)하여 조선후기 궁중연향의 의식 절차와 방식을 새롭게 양식화하고 그 결과 궁중연향의 정치적 성격을 확립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대리청정을 하기 전까지 조선 궁중연향의 맥은 거의 끊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순조 원년 신유사옥으로 악정(樂政)이 중단된 상태에서 대청이전 순조조에서 개최된 유일한 진찬인 순조 9년 연향에서 정재 없이 음악만 연주되던 궁중연향문화의 수준을 효명이 여러 악장과 정재를 만들고 연향절차도 새롭게 양식화하여 끌어 올렸다. 그리하여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계승되는 정재와 연향의 양식을 확립한다. 그는 예악정치의 일환으로 정재와 궁중연향을 다루었으므로 그에게 궁중 연회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왕 중심의 지배질서와 왕의 위상을 높여려는 계산에서 의도된 정치적인 의식이자 기획이었다. 모든 중신과 왕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한 정치의식의 재천명이었고 따라서 거창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지닌 진연의식으로서의 변화와 화려한 정재로의 변신은 궁중 잔치가 지닌 정치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조선조에 궁중에서 행해진 연향의 이름은 진풍정(進豊呈), 진연(進宴), 진찬(進饌), 진작(進爵) 등의 용어로 불리어졌다. 진풍정이란 조선초기에 ‘연향을 올린다’는 뜻으로 쓰이다가 성종대(1469-1494)에 진풍정이 진연이란 용어로 대체되었으며, 진찬과 진작은 진연보다 규모가 작은 연향이다. 조선시대 궁중연향은 ‘예악(禮樂)에 의한 교화정치’의 일환으로서 군신간의 대화의 장이자 사회통합의 기능을 지닌 국가적인 행사였다. 조선 전기에는 왕과 왕비의 탄신일, 설날 동지 조하(朝賀) 후에 그리고 세자나 신하들이 임금에게 올리는 풍정이 매년 행해졌다. 그러나 선조대부터 흥년과 민생 등의 경제적 이유로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영조대에 접어들면서 진연의례가 더욱 검소해지고 축소되어 규모도 국가적인 것에서 집안 규모의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다. 따라서 83세까지 살아 조선 왕들 중 가장 장수한 영조왕의 재위기간(1724-1776, 51년 7개월)에도 진연은 단 11차례 이루어졌을 뿐이었으며 정조 조(1776-1800, 24년 3개월)에는 단 한차례의 진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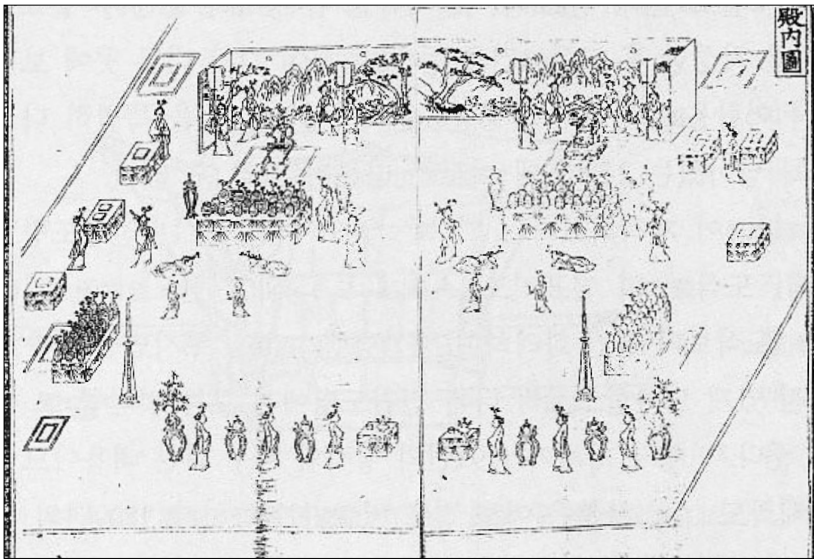
4차례의 진찬만을 치렀을 뿐임에 비해 효명세자는 그의 대청기간동안 매년 여러 차례의 화려하고 격식을 갖춘 예연(禮宴)으로서의 대규모 황제식 연향을 베풀었다.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한 첫해 순조 27(1827)년 7월에 원손(元孫)이 탄생하자 9월 9일에 부왕인 순조에게 ‘연덕현도경인순희(淵德顯道景仁純禧)’라는 존호를 올리고 순원왕후 김씨에게는 ‘명경(明敬)’이란 존호를 올렸으며(순조 실록 27년 9월) 이를 기념하기 위해 9월 10일에 자경전에서 왕과 왕비에게 진작례(進爵禮)를 행하였다. 이 연향의 목적은 왕위를 이을 왕통의 탄생이라는 경사를 통해 보다 공고해진 왕권을 과시하고 부왕에게 존호를 올림으로서 보다 굳건해진 왕실의 체통을 과시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효명은 왕의 계속되는 사양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이나 권유함으로서 진작례의 허락을 얻어낼 정도로 이를 고집하였다. 이 연향에서는 정재 공연이 없었으며 왕에게 작만을 올리는 순수 의식의 성격이 컸다. 따라서 악장과 치사의 비중이 커졌으며 이로부터 효명세자가 자신의 대청기간 중에 확립한 궁중 연향에 부여한 정치적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는 궁중연향을 단지 군신간의 술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주변을 향해 낭독되고 불리는 치사와 전문, 악장들을 공경한 신하의 예로서 올리는 정치적 의식으로 양식화하였다. 치사(致詞)는 연향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잔을 올리는지를 축하의 글로 진술하는 행위로서 매 잔이 올려질 때마다 연향 참석자 모두가 돌아가며 올리는 송덕의 글이고, 전문(箋文)은 임금이 그 어버이에게 올리는 송덕의 글이다.

치사와 전문이 올려지는 순서는 연향 참석자가 모두 자리 잡고 선창악장으로 연향이 시작되고 왕세자가 제 1작을 왕에게 올린 뒤에 왕세자를 비롯한 모든 이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낭독되고 주변은 치사를 들은 다음 잔을 마실 수 있다. 따라서 백관대신이 모인 자리에서 정권의 주도자인 왕세자가 전례를 깨고 직접 지어올린 치사와 전문의 낭독은 내용과 상관없이 대단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기 마련이다. 치사의 내용이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자면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의식에서는 치사의 내용보다도 치사를 올리는 의식(儀式)행위 자체가 의미 있는 정치적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그리고 정재 공연 시에 불리거나 낭독되는 창사는 정재악장으로 불리어지며 춤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춤을 통해 왕의 선정(善政)과 선치(善治)를 칭송하고 만수무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효명세자가 자

신이 주도한 연향들의 악장과 치사 전문을 모두 예제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였으며 따라서 자신이 직접 주도하고 챙김으로써 정치적인 중요성과 의미를 담고자 한 것이다. 그가 쓴 치사와 전문 그리고 연향악장들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왕을 정점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지배질서를 향한 그의 염원이 느껴진다.

그가 연향을 통해 치사와 전문 그리고 악장을 중시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18세기까지 조선조의 연향을 기록한 의궤에서는 악장, 치사, 전문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음에 비해 효명 이후의 19세기 의궤에서는 제 1권에 악장, 치사, 전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치사를 올리는 절차도 어느 절차보다도 많은 단계를 거치며 예가 표해진다. 낭독되는 치사의 내용은 물론이고 치사가 적힌 글과 이를 담은 치사함 그리고 연향에 치사함을 들여오고 물리는 과정에서 많은 진행요원들이 배속되고 참석자들이 꿇어앉은 상태에서 치사함들이 모두 퇴장한 즉 안으로 모셔진 다음에야 왕세자 이하 연향 자리를 떠날 수가 있다. 그리고 1827년 연향에서 치사함 차비 즉 진행요원은 그 포상으로 망아지 한 필을 받고 있는데 이는 행사 요원들



〈그림 2〉 순조 27년 자경전 진작례(慈慶殿 進爵禮)

『자경전진작정례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이 보통 비단이나 포목을 상급으로 받았던 것에 비해 전무후무한 엄청난 포상인 것이다. 효명이 이 진작례에 동원되는 의장(儀仗)의 수를 많이 줄여 경비를 절감하고 자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치사에 부여한 효명이 생각하는 중요성의 비중이 컸음을 알 수 있고 치사절차가 그만큼 그에게 중요한 의식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효명은 이 진작례에 참가한 각종 차비노(差備奴)들이 포상대신에 면천(免賤)을 원하여 순조 27년 진작 뒤에 서리(書吏)와 여령(女伶) 25명에게 면천을 허락하였다. 이후 뒤이은 28년과 29년의 연향 뒤에도 각기 7명, 40명의 서리와 여기들이 면천되었다. 즉 효명은 진행요원들의 신분계급의 변동을 허락하는 정치적 포상을 한 것이다.

효명세자는 자신의 대청기간 동안 6개월 간격으로 큰 연향들을 주도하였는데 그에 기울인 효명의 노력은 대단하였으며 그가 이런 연향을 단지 잔치로 다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예는 효명이 이런 진찬을 기념하여 과거를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두었으며 또한 '세자가 직접 정재 연습을 관리 감독하는 일로 충언을 했던 예조참판 박기수를 유배시키면서'<sup>6)</sup>까지 열중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순조 28년부터 개최되는 연향은 자신이 예제한 악장으로 대거 새롭게 창작된 정재들이 선보이는데 순조 28년에 이루어진 진작에서 27개나 되는 엄청난 수의 정재공연을 한다. 이는 앞선 숙종조나 영, 정조의 연향에서 보통 7개 정도의 정재가 추어지던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앞서 2월에 개최된 연향에서 추어진 정재들이 창사 없이 공연되었던 점에 비해 28년 6월에 개최된 진작은 효명이 만든 한문 창사들로 보강된 정재공연이었다는 점이 특이하고 동시에 그 연향이 개최된 곳이 바로 효명이 기거하던 연경당(演慶堂)이었던 점이다. 연경당은 왕권회복의 중임을 맡고 대리청정을 준비하며 자신의 정치적 꿈을 키웠던 효명이 기거하던 99칸짜리 사대부가를 본 떠 대궐 속에 만든 효명의 주거지로서 효명은 자신이 새롭게 만든 대대적인 창작정재의 시연을 연경당에서 함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꿈을 만조백관들 앞에 펼쳐 표현코자 했던 것 같다. 그는 예악(禮樂)정치의 일환으로서 궁중의 연향과 춤을 다루어 자신의 정치적 욕구를 드러낸 것이다.

6) 순조실록 29년 1월, 2월, 재인용,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조선후기궁중연향문화』, p.88.

이러한 연향에 참석하는 주빈인 왕이나 왕세자는 익선관과 곤룡포를 입고 참석한다.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는 왕이 편전에서 신료들과 함께 국정을 의논할 때 입는 모자와 예복이다. 따라서 효명의 복식이 이미 그가 연향을 단지 왕가의 집안 잔치가 아니라 국정의 일환으로서 참가한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가 궁중 연향에 부여하고자한 정치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효명세자가 왕실의 위엄과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위해 궁중연향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중요한 매체는 바로 자신이 직접 창작한 악장과 치사, 전문들과 정재였다. 악장은 궁중 연향의식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연회의 장소에 왕과 왕비, 그 외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 오르자마자 불러지는 것이며 연향의 처음에 불러지는 것을 선창악장 그리고 연향 마지막에 불러지는 것을 후창악장이라 한다. 악장은 일반적으로 당대 문형(文衡)들에 의해 창작되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정조의 화성진찬에서 처음으로 정조에 의해 창작된 이후 효명세자가 개최한 1828년 이후의 연향에서 왕세자가 직접 만들었다. 그리고 효명은 이런 연향을 준비함에 있어 ‘한가지 절차나 한가지 의식이라도 반드시 몸소 살펴보고 검사하여 성심성의를 다했다’<sup>7)</sup>고 한다. 자신이 직접 예제한 몇몇 정재의 경우 이름을 송나라와 명나라의 문헌에 있는 악장의 이름을 차용하는 방법을 통해 왕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어지는 1828년 이후의 모든 궁중연향에서는 왕세자가 직접적으로 주도하여 연향에 쓰일 악장과 가사들을 자신이 직접 창작하고 써서 예제(審製)하였을 뿐 아니라 연향에서 추어질 정재의 단자들을 직접 고르고, 치사 전문 등을 미리 지어 내려 보내고, 정재 연습을 감독하고 궁중 연향의 규모와 절차를 크고 새롭게 함으로써 조선 후기 궁중 연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웠다. 이런 궁중 연향의 준비 과정에서 이미 효명의 정치적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조선조 궁중 연향 의식을 준비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예조에서 주관하여 연향이 있을 때만 임시 담당기구인 ‘진찬소’를 만들어 치러왔다. 그러나 효명세자는 1827년의 진작례는 공조에서 주관하도록 하였으나 1828년부터는 자신의 친위대 성격의 중앙군영인 ‘훈국동영’에다 진찬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친위부대로 하여금 궁중 연향을 준비하도록 한 예는 화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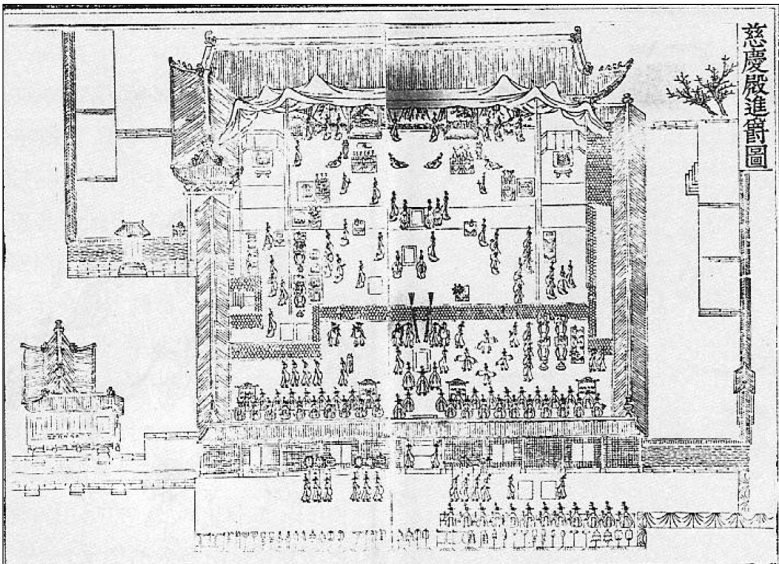
7) 순조실록 30권(순조 29년 정월).

원) 신도시를 꿈꾸던 정조의 경우가 처음이었다. 효명세자 역시 친위대를 키우고 보강하여 군권을 장악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정조의 왕권 강화의지와 공통점을 보이며 따라서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개최하는 궁중연향을 자신이 신임할 수 있는 친위대 군영에 맡긴 것이다. 그리고 첫날 낮에 이루어지는 정일연이라고 하는 연향이 치루어 진 다음날 연향을 주최한 인물이 주빈이 되어 진찬의식 준비에 수고한 사람들을 위한 ‘익일 회작’ 과 ‘익일야연’ 등이 이루어진 것도 1928년 효명이 주최한 연향에서 처음 나타난다. 익일회작과 익일야연과 같은 이튿날 연회에서 이들 군영의 신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로부터 치사를 받는 과정을 통해 효명은 이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들의 충성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는 연향이 개최되는 자리에 겹겹으로 도열하는 군대의 수와 종류를 대폭 늘림으로써 군권을 장악한 임금의 위상을 강조하려는 듯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1829년에 주관한 진찬에서는 진찬소 당상에 안동 김문과 대립하는 박종경의 아들 박기수를 임명하여 그가 궁중연향을 통해 외척세력에 대한 견제와 왕권강화라는 자신의 일차적 정책을 가시적으로 실현하는 도구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연향의 절차를 변화시켜 더욱 격식을 차리도록 하였는데 우선 연향에 참가하는 종친과 척신 모두 일일이 술을 올리고 각기 치사를 하도록 하여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 결과 규모가 커지도록 하였다. 궁중연향은 술이 한잔 올려질 때마다 춤과 음악이 연주되는 구조인데 대개 연향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악장과 함께 시작되고 끝난다. 그러나 효명세자는 첫잔이 올려지기 전에 선창악장과 함께 정재가 추어지도록 하여 연향의 개막을 화려하게 하였다. 그와 더불어 춤의 반주음악과 악장을 연주하는 악대의 편성도 연주 악기 편성과 연향장소에서의 배치 위치와 연주 순서 등에 따라 각기 ‘등가’와 ‘헌가’ 그리고 ‘내취’ 등으로 불리는 다른 세 개의 악대를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확대된 연향 규모에 어울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숙종조 이후 절차가 간소화되고 참석인원도 줄었던 진연의식은 효명의 대청기간 동안 절차도 새롭게 추가되고 백관을 비롯한 참석 인원도 확대되는 등 화려한 대규모의 진연으로 변하게 된다. 순조 29년 기축년 진찬의 외연에 참석한 신하의 수는 221명이었으며 이들의 접대를 맡은 관리만도 70인이 동원되었을 정도의 규모였으니 소요시간도 상당

한 장시간의 공연이었을 뿐 아니라 그 장대함과 화려함이 대단하였으리라 짐작된다. 1828년 진작에는 조선조 다른 연향에서는 한번도 쓰인 적이 없는 공작병(孔雀屏)이 나타나고 있으며 어좌(御座)와 공주 좌석 부근에 양탄자와 수달피 방식이 등장하고 있고, 1828년 야진찬에는 조명을 위해 4각과 6각 유리등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수입품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음식 꼭대기에 장식하는 꽃들이 18세기까지는 모두 종이로 만든 꽃이었는데 28년 진작부터는 비단과 벨벳종류로 만들어져 19세기 궁중문화가 한층 사치스럽고 호사스러워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춤의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도 새롭게 창작된 작품이 대거 소개되고 다양한 음악 반주와 춤추는 무용수의 수가 늘어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소품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레파토리로 구성되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형태로 변화해 갔으며 연향에서 추어지는 춤의 종류도 대폭 늘어났다. 여러 궁중 의식을 주도하면서 정재무(呈才舞)를 창작하게 하고 규모를 더욱 화려하게 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정재들도 화려하게 채색하게 하였으며 전통적인 악장을 버리고 자신이 창작한 다수의



〈그림 3〉 순조 28년 무자진작(戊子進爵)

『무자진작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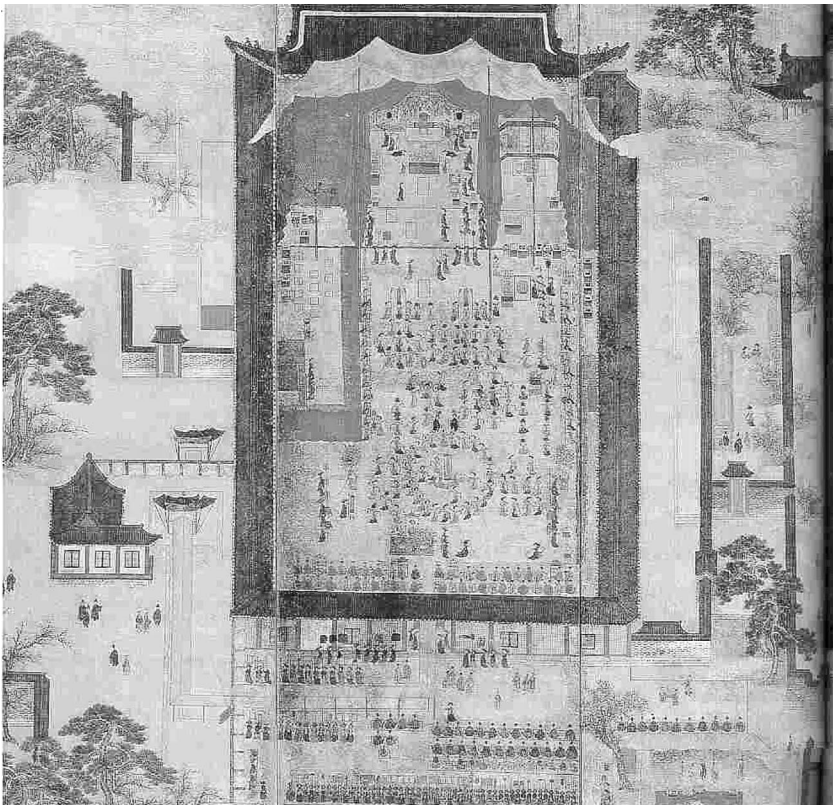
www.kci.go.kr

한문 창사로 바꾸어 올렸다. 궁중연향에 쓰일 궁중춤을 위해 그는 20여종의 궁중 정재들을 새롭게 직접 예제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 전해 내려오던 다수의 정재들의 가사와 내용을 한층 격조있게 다듬어 다시 재창작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이 대리청정한 3년여의 짧은 시기를 통하여 조선 궁중 정재의 수준을 정점으로 끌어올려 정재를 왕궁문화의 꽃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조선조 궁중 정재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효명이 직접 창작한 정재의 정확한 숫자에 관하여는 학자에 따라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은 그가 자신의 대리청정기간 동안에 창작한 정재의 수는 30여 편에 조금 못 미친다. 이는 조선조 말까지 전해지는 정재의 수가 53종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효명의 조선조 궁중 무용발전에 미친 영향은 가히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효명이 예제한 정재의 무용사적 의의는 단지 그 숫자적 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는 「고구려무(高句麗舞)」처럼 중국 문헌들에 이름만 남아있고 그 실체가 전해지지 않는 춤들을 재창작하여 되살려 내고, 「사선무(四仙舞)」처럼 신라 시대 사선으로 불린 화랑들의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이름만 전해오던 춤들을 모두 자신의 신작(新作)으로 되살려 내었을 뿐 아니라 전대로부터 전승되어오던 정재들도 다시금 화려하게 채색하고 무원들의 수도 늘려 규모를 확대하여 웅장하고 화려한 대규모의 연희에 적합한 정재의 성격을 만들었다. 그리고 중국의 문헌에서 전거한 당악정재의 경우도 향악화하여 종래 당악정재(唐樂呈才)와 향악정재(鄕樂呈才)간에 있었던 형식적 그리고 내용적인 차이를 불식시켰다. 이는 단지 중국에서 유래한 당악적 요소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춤이 중심이 되는 향악 정재의 예술적인 장점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한다.

조선조 초기의 정재들이 내용적으로 왕권 창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도구로 쓰이던 정치적 색채를 약화시키고 효명의 문학작품 세계가 지녔던 자연대상과 사물들을 본 뒤의 감흥을 춤으로 묘사하거나 자연의 풍경과 아름다움을 이야기 하는 춤의 세계를 펼치고, 이제까지 궁중정재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독무 형태의 춤도 새롭게 등장하며, 창사 없이 전문적인 기교를 선보이고 시각적인 흥겨움을 강조하는 스펙타클한 성격의 정재도 늘어나 궁중 춤의 주제와 소재가 다양해지고 표현방식과

춤 형식 역시 다양해져서 그 예술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나아가 공연 구성에 있어서도 향악 정재의 비율을 당악정재에 비하여 월등히 높임으로써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춤에 있어서의 진경시대를 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세종 조에 조선조 예악정치사상에 따라 음양오행사상에 입각한 정재 창작원리가 확립된 이후 진연의 기회가 줄어들고 규모 역시 축소되어가던 궁중무용은 효명에 의해 조선중화사상에 적합한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여 예술적으로나 양적으로 유례없는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림 4〉 순조 29년 기축 진찬(己丑進饌)

김문식 외(2005),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p.226.

www.kci.go.kr

## V. 효명이 주최한 연향과 창작한 정재

효명세자는 대리청정을 시작한 첫해부터 매년 국가적인 연향을 개최하면서 이름만 전해오던 정재들을 개작하거나 새롭게 창작하는데 이는 조선조 ‘정재의 정비와 확충이라는 전문적인 업적’<sup>8)</sup>이라 할 수 있다. 효명세자가 6개월 간격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연향을 주최하면서 치사와 전문 그리고 악장들을 미리 지어서 내려 보내고 정재 연습을 일일이 감독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그 스스로가 작무(作舞)까지 하였으리라 생각되지는 않고 춤의 안무부분은 효명의 대리 청정 첫 해에 장악원의 가전악이었던 김창하를 전악으로 발탁하여 맡겼을 것이라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창작한 정재창사 내용 중에 춤사위를 지칭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움직임 표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정재들이 있다는 점과 효명이 정재연습을 직접 감독하였다는 기록을 감안한다면 그가 춤의 창작에도 크게 관심을 두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조선전기 세종이 박연과 함께 아악의 부흥을 이룬 것처럼 효명은 김창하와 함께 조선정재의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효명은 ‘악인(樂人)중 기술 우량자로 악단을 조직하여 이 악단을 구후관(九猴官)이라고 하고 김창하를 구후 감관(監官)으로 칭하여 궁중에서 주야로 입직(入直)케 하여 시시로 어전에서 주악(奏樂)하도록 하였다’<sup>9)</sup>한다. 남녀가 유별한 조선조에 왕세자가 직접 정재 연습을 감독하는 것에 대한 말이 있었으며 따라서 27년 진작례에는 지방 기녀들을 행사를 위해 불러 올렸지만, 28년 연향에서부터 무동(舞童)으로 하여금 정재공연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29년 연향에서는 다시금 여기(女妓)들로 하여금 정재공연을 하도록 하면서 가장 화려하고도 예술적으로 수준 높은 연향을 완성하게 된다.

순조 이전 숙종 조로부터 영, 정조에 이르기까지 궁중연향에서 추어진 정재의 수는 보통 7개 정도의 정재가 추어졌으며, 적을 경우는 4개, 가장 많은 수의 정재가 추어진 정조 19년의 연향에서도 11개에 불과했다. 그리고 순조 조에 접어들어 효명의 대리청정 이전에 이루어진 순조 9년의 연향에서도 정재공연은 없었으며 순조 27년의 경우도 진작례였기에 정재공연은 없었다. 그러나 28년 2월의 진작에서는 앞선 왕

8) 조규익(2004). 익종악장연구, 『고전문학연구』, p.61.

9) 성경린(1976). 『한국의 무용』(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171.

들의 연향에서 주로 추어지던 레파토리를 두 번씩 추는 방식을 취하여 8개 레파토리로 12번의 정재공연을 하였는데 그나마 이 공연에서는 한 정재를 제외하고는 춤의 목적을 알리는 창사 없이 공연되었다. 이는 궁중 정재가 근본적으로 춤이 중심이 되지만 그와 함께 창사와 치사, 구호, 반주음악이 어우러진 악가무(樂歌舞)의 종합예술의 본질을 왜곡하게 되며 격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연향에서부터 세자가 직접 정재 악장들을 만들어 잘못을 바로잡는데, 이는 그가 대리청정을 시작한(1827년 2월) 다음 달에 종묘제사의식에 쓰이는 의식무인 일무(佾舞)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지 못함을 시정하기 위해 대년악생(待年樂生) 72명에게 봉급을 주면서 춤 연습을 하도록 한 일과도 일맥상통 하는 조치이다. 효명은 제사와 연향에서 격식과 체통에 모자람이 없도록 함으로써 부왕을 비롯하여 조선의 역대 왕들을 모시는 일을 종묘사직을 받드는 자신의 통치 질서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예약정치의 이상을 표명하는 일이라고도 하겠다. 이후 1828년 6월 연경당 진작에서 네 차례에 걸쳐 행해졌던 궁중잔치에서는 27종의 정재가 공연되었으며 이중 17개는 완전하게 새롭게 선보이는 정재로 효명세자가 직접 만드신 것이다. 따라서 효명세자가 궁중연향을 주도하면서 빈약한 정재 레파토리와 그나마 창사마저도 제대로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직접적으로 새로운 정재들을 재구성하거나 창작하였다. 순조 28년과 29년 동안에 내, 외연에서 거행된 모든 정재의 수는 40여개에 달하여 가히 조선 정재역사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문예부흥기를 맞이하였다고 하겠다.

효명이 그토록 열심히 정재를 만든 배경을 헤아려 보자면 그 자신 왕 중심의 지배질서를 진찬의식을 통해 가시적으로 구축하고자 한 상황에서 궁중 문화의 꽃인 정재가 없다는 것은 왕실의 체통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 같다. 이는 효명이 정치적으로 기강 확립과 체통을 중시하는 엄정한 의리론을 펼친 것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한다. 그는 앞 시대에 이름만 전해오던 것을 개작하거나 새롭게 창작하여 조선 정재의 레파토리를 일대 정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의 자주적이고 예술적인 기획 마인드가 엿보인다. 고구려나 신라시대의 춤을 다시금 되살려내고 궁중 춤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솔로 춤을 만듦으로써 대형 중심이 아니라 기교 중심의 전문적인 춤 양식을 만들어낸 점, 그리고 춤의 진행에서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바로 춤으로 시작되도록 하는 진행 방식 등이 그가 예술적인 안목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게 하고 따라서

그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한다. 그리고 그는 조선 후기 정재의 예술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예술사적 위업을 실질적으로 단 2년 안에 해치운 것이다. 즉 정재 공연이 들어오는 28년 2월 진찬에서 29년 6월에 있는 자경전 진찬까지의 기간 동안의 정재가 포함된 연향만을 중심으로 보자면, 창사가 없는 무의미한 정재공연의 실정에서 화려한 정재와 까다로운 절차를 지닌 거창한 황제식 연향으로의 전환은 거의 마법과도 같은 업적이라 하겠다. 그가 조선조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무용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는 그의 짧은 통치기간을 고려해 본다면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할 가히 전무후무한 천재적인 업적이랄 수 있다.

효명이 대리청정기간동안 주최한 연향은 다음과 같다.

• 순조 27년(丁亥) 자경전 진작례(進爵禮)

일 시: 1827년(丁亥年) 9월 10일

장 소: 慈慶殿

목 적: 순조 27(1827)년 7월에 원손(元孫)이 탄생하자 9월 9일에 부왕인 순조에게 ‘연덕현도경인순희(淵德顯道景仁純禧)’라는 존호를 올리고 순원왕후 김씨에게는 ‘명경(明敬)’이란 존호를 올렸으며(순조 실록 27년 9월) 이를 기념하기 위해 9월 10일에 자경전에서 왕과 왕비에게 진작례(進爵禮)를 행하였다. 이 연향의 목적은 왕위를 이을 왕통의 탄생이라는 경사를 통해 보다 공고해진 왕권을 과시하고 부왕에게 존호를 올림으로서 보다 굳건해진 왕실의 체통을 과시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이 연향에서는 정재 공연이 없었으며 왕에게 작만을 올리는 순수 의식의 성격이 컸다.

• 순조 28년(戊子) 자경전 진작(慈慶殿 進爵)

일 시: 1828년 2월 12일 묘시(卯時: 오전5-7)

장 소: 慈慶殿

목 적: 순조비 순원왕후의 사순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된 본 국연은 2월 12일 진작과 야진별반과, 13일의 왕세자 회작 등 세 차례의 잔치가 있었고 6월 1일에는 연경당에서 진작의식으로 네 차례의 연향이 거행되었다. 이렇게

2월과 6월에 진작행사를 행하였으며 왕비의 탄일인 5월 15일과 왕의 탄일인 6월 18일에 효명이 치사와 표리를 올리기도 하였다.

본 연향은 세자가 대리정사를 본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개최되었기에 성공적 대리정사에 대한 자축과 중궁의 40세의 축하를 겸하여 중궁을 위한 자경전정일진작과 자경전 야진별반과 이외에 세자를 위한 자경전 익일회작이라는 연회부분을 별도로 구성하여 정사를 보는 세자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

- 무자 자경전 야진별반과(夜進別盤果)  
1828년 2월 12일 이경(二更: 밤 9-11시)
- 무자 자경전 왕세자회작(王世子會酌)  
1828년 2월 13일 진시(辰時: 오전 7-9시)
- 무자 연경당 진작(延慶堂 進爵)  
1828년 6월 1일 진시(오전 7-9시)
- 순조 29년(己丑) 명정전 외진찬(明政殿 外進饌)  
일 시: 1829년 2월 9일 午時(오전 11시-오후 1시)  
장 소: 明政殿

목 적: 순조의 성수 40년과 등극 30년을 맞이하여 거행된 진찬으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명정전, 자경전에서 거행되었으며 외진찬과 내진찬, 야진찬 그리고 왕세자회작 등의 네 차례의 잔치를 행하였다. 또한 순조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6월 19일 진시에 자경전에서 진찬을 베풀고 이날 저녁 이경에 야진찬을 시행하여 총 여섯 차례의 연향이 베풀어졌다. 부왕의 탄신을 기념하는 기축년의 일련의 범국가적인 행사는 효명의 효심에서 비롯되었겠지만 그와 동시에 김조순 중심의 정치세력을 견제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자하는 그의 정치적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효명의 무용정치이기도 하다. 바야흐로 이 시기의 연향을 통해 효명은 연향의 정치적 성격을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기축 자경전 내진찬(內進饌)

1829년 2월 12일 진시(오전 7-9시)

- 기축 자경전 야진찬(夜進饌)

1829년 2월 12일 이경(오후 9-11시)

- 기축 자경전 익일 왕세자 회작

1829년 2월 13일 진시(오전 7-9시)

- 기축 자경전 진찬

1829년 6월 19일 진시(오전 7-9시)

- 기축 자경전 야진찬

1829년 6월 19일 이경(오후 9-11시)

이런 연항들에서 추어진 정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sup>10)</sup>.

## 효명의 대청시기에 창작되어진 정재 목록

대리청정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제(睿製)정재의 출현으로 효명세자가 직접 지은 정재창사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들 예제정재는 기록에 따르면 1828년에 11종 그리고 1829년에 10종목에 이른다. 1828년 진작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제 「경풍도」, 예제 「만수무」, 예제 「망선문」, 예제 「무산향」, 예제 「복(박)집」, 예제 「보상무」, 예제 「영지무」, 예제 「침승무」, 예제 「춘대옥축」, 예제 「춘앵전」, 예제 「헌천화」로 11정재이고 1829년에 진찬에서는 예제 「무고」, 예제 「아박」, 예제 「장생보연지무」, 예제 「가인전목단」, 예제 「무애」, 예제 「사선무」, 예제 「연백복지무」, 예제 「제수창」, 예제 「최화무」, 예제 「보상무」로 10개이다. 여기서 예제 「보상무」는 『무자진작의궤』 부편과 『기축진찬의궤』 부편에 기록된 창사가 다르기 때문에 예제종목으로서 두 번 카운트된 것이다. 성경린은 28년과 29년사이 효명이 예제한 정재를 「고구려무」와 「연화무」, 「춘광호」, 「침향무」, 「향령무」를 포함한 22개의 정재로 서술하고 있다. 성경린의 견해처럼 부편의 정재약장에 기록된 「고구려무」가 효명창작정재로 간주되는 이유와 동일하게 「공막무」가 효명의 창작정재로 생각될 수 있다. 그리

10) 신경숙(2005). 19세기 진연문화와 문학. 『조선 후기 궁중연향 연구』, (서울: 민속원), pp.82-83.

하여 대정시기에 창작되어진 정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춘앵전(春鶯囀)」, 「무고(舞鼓)」, 「아박(牙拍)」, 「무애(無尋)」, 「가인전목단(佳人剪牡丹)」, 「최화무(催花舞)」, 「보상무(寶相舞)」, 「경풍도(慶豐圖)」, 「만수무(萬壽舞)」, 「망선문(望仙門)」, 「무산향(舞山香)」, 「박접무(撲蝶舞)」, 「사선무(四仙舞)」, 「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 「영지무(影池舞)」,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 「제수창(帝壽昌)」, 「첩승무(疊勝舞)」, 「춘대옥촉(春臺玉燭)」, 「헌천화(獻天花)」, 「고구려무(高句麗舞)」, 「공막무(公莫舞)」, 「연화무(蓮花舞)」, 「춘광호(春光好)」, 「침향춘(沈香春)」, 「향령무(響鈴舞)」

정리하자면 효명의 대리청정시기에 연행된 정재는 모두 40여종이고 27년에는 정재공연이 없었고 28년에는 19종이 새롭게 나타났으며 29년에는 4종목이 처음 등장하였다. 이렇게 23종이 창작정재로 시도되었어도 「무애」, 「무고」, 「아박」을 창작정재 수에 포함한 이유는 위의 춤의 창사는 효명에 의해 다시 태어났고 참가인원수에 있어서도 이전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기에 흘기도 없이 복원한 춤의 내용에도 분명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가 직접 창작한 정재의 정확한 숫자에 관하여는 학자에 따라 이견<sup>11)</sup>이 있지만 앞서 언급된 이유로 이들을 새롭게 창작된 정재로 폭넓게 포함하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창작범주 기준은 대청 기간동안의 공연여부와 상관없이 효명의 조선정재 확충 사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정재 레파토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둔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의견들을 폭넓게 수용하자면 『무자진작의궤』와 『기축진찬의궤』 그리고 정재도와 공령(工伶) 그리고 정재악장에 기록된 것을 모두 포함한 것 23종의 창작궁중정재와 『고려사』 악지에 나타난 「무애」와 「무고」 그리고 「아박무」까지 포함하여 창작정재의 수를 26종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효명세자가 자신의 대리청정기간 동안 창작한 정재의 수는 30여 편에 조금 못 미치고 결과적으로 조선조 말까지 전해지는 정재의 수가 53종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효명이 조선조 궁중 무용 발전에 미친 영향은 가히 압

11) 사실 창작정재에 포함여부는 준비 목록에는 있지만 실제 공연을 기록한 의궤에는 빠져 있는 경우, 그리고 제목은 같지만 창사나 대형이나 춤추는 인원의 차이 때문에 같은 춤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등등의 이유로 인한 것이다.

〈표 1〉 효명주최 연향에서 추어진 정재목록

		선창악장과 그 이전 정재공연	진작의식과 정재공연	후창악장과 그이후 정재공연
순조28 (무자)	2월	자경전 진작의		
		광수무	아박무, 아박무, 향발무 향발무 수연장 수연장 침수무 침수무 무고 포구락	처용무
		자경전 야진별반과의		
		초무 아박무 향발 침수무 수연장	포구락 무고 광수무 침수무 포구락 광수무 아박무 향발무 수연장 초무	광수무 처용무
	6월	연경당 진작의		
		망선문무 경풍도무 만수무 현천회무	춘대옥축무 보상무 향령무 영지무 박접무 침향춘무 연화무 춘행전무 춘광호무, 침승무	최화무 가인전목단무 무산향무
순조29 (기축)	2월	명정전진찬의		
			초무 아박 향발 무고 광수무 침수무 아박 향발 무고	
		자경전 진찬의		
		몽금척	장생보연지무 현선도 향발무 아박무 포구락 수연장 하황은 무고 연화대 검기대	선유락 오양선
		자경전 야진찬의		
		포구락	무고 춘앵전	검기무
	자경전 익일 왕세자 회자의			
		하황은 침수무 연화대 보상반 몽금척 현선도 가인전목단	무고 춘앵전 처용 향발 검기무 수연장 포구락 선유락 아박	장생보연지무 오양선
	6월	자경전진찬		
		연백복지회 아박 무에 최화무 가인전목단	장생보연지무 제수창 무고 향발	사선무 보상반
자경전 야진찬				
	가인전목단	장생보연지무 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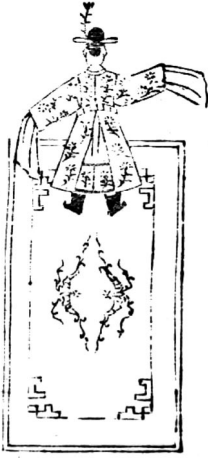
도적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효명세자가 예제한 정재악장들은 그의 연향의식용 작품집인 『예제(睿製)』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 외 효명세자의 저술은 자신의 문집에 해당하는 『경헌시초(敬軒詩抄)』, 『학석집(鶴石集)』, 『경헌집(敬軒集)』, 『담여헌시집(淡如軒詩集)』, 『열성어제(列聖御製)』 등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 VI. 무용의 진경문화(眞景文化)형성에 끼친 효명의 역할

조선조의 문화예술사를 통 털어 조선 문화가 조선의 고유색을 한껏 드러낸 문화 절정기를 진경시대라고 한다. 그 기간은 숙종조(1675-1720)에서부터 정조조까지로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치는 시기이다. 진경문화의 기초가 되는 이념은 조선 성리학이고 그 사상적 기반은 조선중화(朝鮮中華)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퇴계 이황이 주자 성리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진전시킨 뒤를 이어 율곡 이이가 조선 성리학의 기본 이념을 확립해가는 17세기의 정치, 문화적 상황은, 명이 멸망한 상태에서 이제 중화문화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자 성리학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조선만이 중화문화를 계승할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제는 조선이 중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그 결과 조선이 중화의 적통을 계승한 중화문화의 담당자라는 자부심이 조선중화의식을 낳았다. 그리하여 이전의 소중화의식은 조선중화의식으로 확대 진전되고 이에 조선은 비로소 변방의식을 탈피하여 문화중심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 문화 자존의식을 꽃피우고 여러 예술분야에서 조선 고유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숙종조와 이어지는 경종의 시기를 진경문화의 형성기로 그리고 영조조를 절정기로 그리고 정조조를 쇠퇴기로 보는데 이는 주로 시와 그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정조조를 이은 순조조에서 대리청정을 한 효명은 조선 후기 궁정무용에 있어서 단기간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자주적인 정재양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춤에서 진경문화적인 조선 고유문화의 특성을 형성하고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효명이 대청을 하던 시기는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에 대체되는 새로운 시대사상인 북학론이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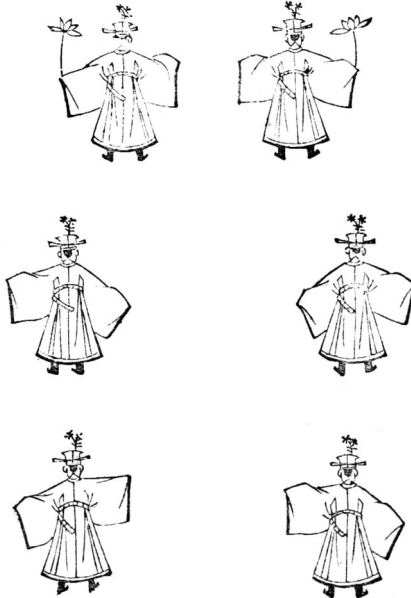
〈그림 5〉 춘앵전(春鶯囀)(舞童)

『무자진찬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그림 6〉 춘앵전(春鶯囀)(女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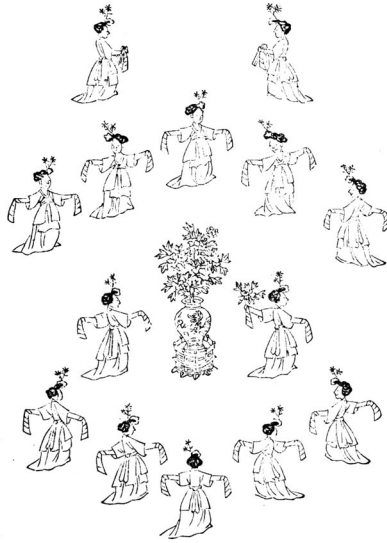
『기축진찬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그림 7〉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기축진찬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www.kci.go.kr



〈그림 8〉 사선무(四仙舞)

『기축진찬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그림 9〉 무고(舞鼓)(女妓)

『기축진찬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그림 10〉 무고(舞鼓)(舞童)

『기축진찬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하고 있었고 효명 자신도 박규수와의 친교를 통해 개혁적인 북학사상에 경도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상적으로 다른 시기에 효명이 무용에서의 진경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문화 일반론에 부합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의 개혁적이고 자유로운 궁중 춤 양식을 효명의 고유 양식 아니면 조선의 고유색으로 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대부나 재능있는 중인 개인의 활동으로 가능한 시나 그림과는 달리 궁중 춤은 그런 춤이 공연되는 기회인 궁중연향이 개최되어야 가능한 집단적인 종합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궁중연향을 개최하고 궁중연향문화의 수준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효명의 치하에서 조선의 자주적인 춤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따라서 시나 그림보다 궁중 춤에서의 조선 고유색의 형성과 등장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영, 정조기와 효명의 대청이전의 순조조에서는 궁중연향이 활발하게 개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궁중연향에서 추어진 정재에는 고려로부터 중국에서 수입되어진 당악 정재와 우리나라의 고유한 음악과 춤에서 발생한 향악 정재가 있는데 이들 간의 차이는 효명

이전까지 일종의 규범으로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다. 우선 당악 정재는 당악기로 편성된 당악 반주로 추어졌는데 당악이 가락의 변화가 적고 완만한 반면에 향악정재는 향악기 편성의 향악 반주로 가락이 훨씬 윤택하고 화려하며 또한 변화도 다양하다. 그리고 춤 형식에 있어서도 당악정재는 반드시 죽간자 2인의 인도와 화려한 의물들을 앞세우고 무용수들이 등장하고 선 구호를 한 뒤 춤이 시작되어 춤 중간에 중무(中舞: 王母)의 한문 치어와 무원 일동의 한문 창사, 죽간자의 후구호가 있고 그 다음 죽간자의 인도로 퇴장하는 형식절차를 지녀 당악자체가 전강(前腔)과 후강으로 엄격한 구조를 지닌 것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비해 향악 정재는 죽간자나 격식을 차리는 복잡한 형식 없이 무용수들이 나와 큰 절로 시작과 끝을 맺고 춤 사이에 무원의 우리말 창사가 있을 뿐이어서 당악정재에 비해 형식이 소박하다. 전통적으로 조선 전기에 창작된 정재 중에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춤은 거창한 형식과 의물 그리고 격식을 강조하는 당악정재양식을 빌어 창작하였다. 하지만 춤의 내용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당악정재인 「포구락」이 공놀이 게임을 유희화한 경우인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 만들기 외에 다양한 움직임이나 춤의 기교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에 반하여 대표적인 향악 정재인 「검기무」와 「무고」, 「처용무」 등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각기 칼을 돌리며 혹은 북을 치며 춤추는 경우나 강력한 스토리를 가진 인물의 독특한 탈을 쓰고 추는 춤 솜씨 그 자체가 충분히 기교적이며 매력 을 지닌 감상 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향악정재는 각 춤마다 다양하고 개성적인 동작 과 높은 기교 수준을 지녀 예술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순조 28년과 29년 사이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직접 정재악장을 만들고 정재 레파토리를 발굴하고 기획 확충해가면서 그는 전통적인 당악과 향악간의 이분법적인 형식규범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춤의 양식을 만들었다. 이는 진경산수화나 진경시가 중국의 상이한 기법을 결합하는 방식이나 우리나라의 산천을 정감있게 자긍심을 가지고 읊는 차원 보다 훨씬 자주적이고 예술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효명은 명나라의 세 왕들에게 드리는 대보단(大報壇)제향을 열심히 행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왕들 중에 유일하게 대보단 제향의 악장을 지었는데, 이 대보단 제사야말로 존주의식과 존왕의식이 압축되어 있는 의식이자 바로 조선이 중화의 적통임을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이런 대보단 제향에 쓰이는 악장

www.kci.go.kr

을 예제하면서 왕권회복의 의지를 피력함과 동시에 그는 자연스레 조선 중화사상의 맥을 이었던 것 같다. 그 증거는 그가 만든 정재들에서 중국의 춤에 대한 사대의식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유자재로 당악과 향악의 양식을 혼용하고 있고 그 결과 더욱 더 높은 예술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명세자가 창작한 정재에서 발견되는 조선 문화 자존의식은 당악정재를 향악화하고 향악정재를 활성화한 점 그리고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조선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효명세자는 중국의 문헌에 있는 역사기록과 문학으로부터 춤의 소재를 얻어 오기도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전래되는 이야기나 전설로부터 모티브를 가져오고 민간에서 추어지던 것을 격식을 갖춘 화려한 춤으로 변화시켜 정재를 창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효명은 고려조와 조선전기부터 전래되어오던 당악 정재의 반주는 물론 새롭게 창작되는 정재의 반주를 모두 향악으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순조 28년부터 모든 춤의 반주에 향당교주라 불리는 향악곡을 압도적으로 써 그 결과 당악곡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리하여 순조 28년과 29년에 창제된 20여종의 정재는 모두 향당교주와 가곡선율 그리고 보허자령으로 반주되었다. 즉 민간의 음악이나 노래를 궁중 춤의 반주로 썼다는 사실은 효명이 우리말로 된 가사나 가곡을 즐겨 가창하거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준다. 즉 그는 자신의 춤을 우리의 음악으로 반주함으로써 조선적인 색깔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순조 28년에 개최한 연향에서 당악 정재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죽간자와 구호를 모두 없애버렸다. 즉 새롭게 창제한 정재는 물론이거니와 고려조에서부터 전래해온 당악 정재에도 죽간자와 구호를 모두 배제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연향에서부터 죽간자와 창사가 살아나는데 전통적인 악장들을 버리고 향악 정재와 당악정재의 차이 없이 한문 창사로 바뀌었으며 현토체의 국한문 혼용의 창사도 나타난다. 당시 한문이 학문어인 상황에서 격식을 갖춘 외연에서는 한문 창사로 그리고 야연에서는 국한문 혼용창사로 바꾸어 노래한 것이다. 그리하여 향악정재와 당악정재의 내용적 차이가 없어지고 '죽간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원의 동작이 거의 같고 한문 창사가 보편화되었다.'<sup>12)</sup> 그리하여 당악정재와 향악정재의 명칭도 사라지고 그 내

12) 성경린(1976). p.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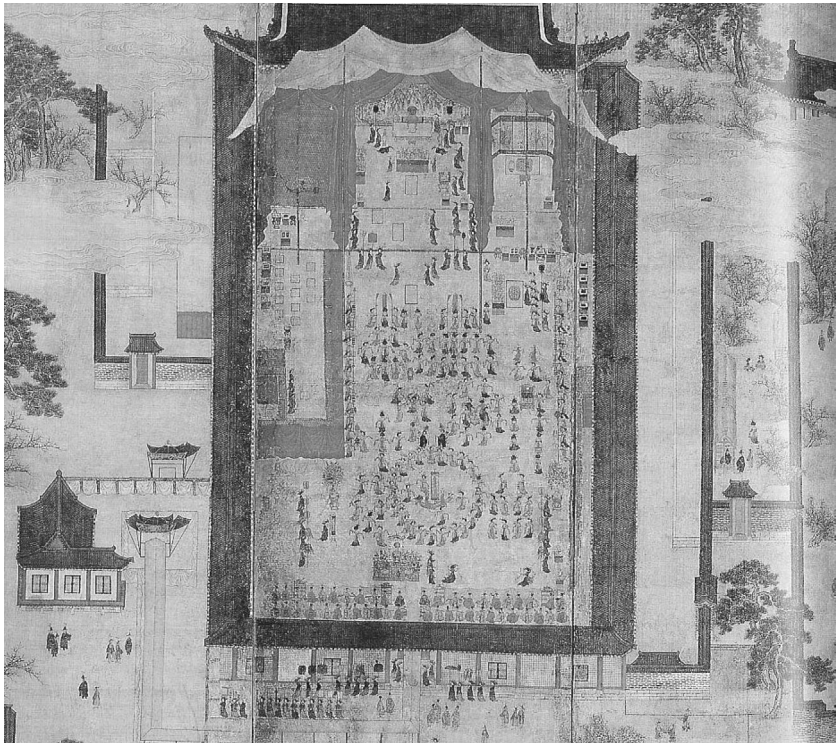
용적 차이도 없어지게 되었다.

춤의 절차에 있어서 거창한 의식절차 없이 바로 춤추면서 시작하고 맺는 형식으로 앞 시대에 비해 간략해지고 그 결과 의식적인 요소 보다는 춤이 더 중심적인 것으로 강조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당악 정재의 격식을 차리는 형식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방식을 제거하고 보다 춤의 재미와 기교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레파토리 편성이 되었다. 그 결과 그의 창사가 내포하고 있는 선계(仙界)지향이나 흥취가 춤의 세계에 반영되고, 그가 관심을 가지고 선정한 우리나라의 전래되는 이야기나 전설을 주제로 삼아 정재 레파토리를 만들어 민족적인 정서를 되살려내고 그 결과 우리 고유의 예술성을 형상화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 연향에서 공연되는 정재의 기본 성격을 향악화하는 기틀을 세웠다. 그리고 순조 28년과 29년에 개최된 여러 연향들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우선 앞선 왕들 즉 숙종이나 영조, 정조의 연향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정재를 공연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향악정재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 졌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효명이 예제한 정재들이 조선 후기 연향에서 공연되는 주요 레파토리가 되고 또한 그가 새로이 정립한 악장과 연향의 절차가 조선왕조 끝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효명의 조선적인 주제에 대한 관심은 그의 자유분방한 정재 창작형식과 함께 자신의 조선 중화사상을 대변하는 조선 문화자존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효명이 만든 정재악장과 새로운 정재양식 확립과정에서 드러나는 효명세자의 자유로운 창작정신은 마치 그가 전통적인 당악정재와 향악정재 양식의 틀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유분방하다. 사실 효명이 정재를 예제한 당시의 상황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순조 원년에 있었던 신유사옥으로 악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거의 궁중연향과 정재의 맥이 끊긴 상태라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그가 처음 주관한 정재가 들어오는 순조 28년 연향에서도 창사 없이 공연된 실정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정재창사의 기록이 의궤에 포함되어 있지 못했던 당시의 예술 상태가 효명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규범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정재창작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효명은 중국문헌에 이름만 남아있고 실체가 전해지지 않은 고구려시대의 춤인 「고구려무」를 재창작하여 되살려내고, 「사선무」처럼 신라시대 사선(四仙)으로 불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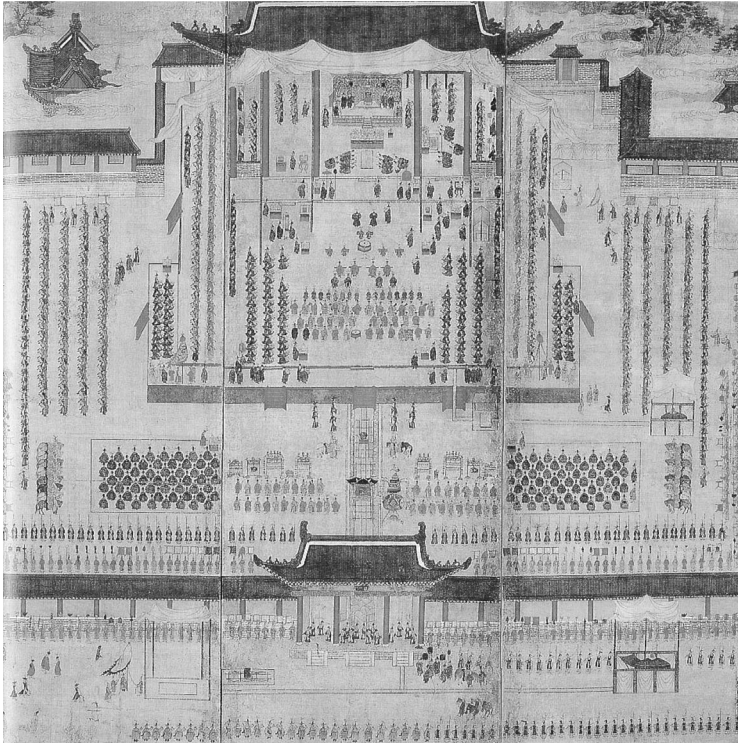
신라 화랑들(영랑, 술랑, 안상, 남석행)의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이름만 전해오던 춤을 자신의 신작(新作)으로 되살려내었다. 이렇듯 고구려와 신라시대의 춤을 되살려내는 그의 기획의도에서 우리나라 춤 문화의 역사성을 거슬러 올라가 문화국가로서의 전통을 과시하고자 하는 효명의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고구려나 신라시대는 당시 조선인들이 선진 중국문화로 생각하던 송이나 명나라보다도 시대적으로 더 오래된 역사성을 지니는 국가 즉 한국의 춤이라는 점과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 칭송한 고구려의 춤을 되살려내는 그의 야심찬 기획의도에서 조선 문화에 대한 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기존 레파토리의 정재에 참여하는 무원의 수를 늘려 규모를 확대하여 장대한 스케일을 연출하는



〈그림 11〉 순조 29년 기축진찬도병1

김문식 외(2005),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p.226.

가 하면 동시에 조선조에서 창작된 정재 중에 유일하게 독무의 형식인 「춘앵전」과 「무산향」과 같은 춤의 형식도 만들어낼 만큼 예술적인 감각과 자유로운 창작 정신을 지녔다. 궁중의 제사와 연향에 동원되는 무용수의 수와 규모에는 그것이 올려지는 대상의 위엄에 상응하는 관례적 의식이 깔려 있기에 그가 정재에 동원되는 무용수의 수를 늘려 확대한 것은 왕과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고자한 그의 존왕 의식의 표현이라 볼 수도 있다. 좁다란 화문석 위에서 춤추는 「춘앵전」은 숙원 숙황후의 보령 40세를 경축하기 위해 중국의 고사를 빌어 자신의 고유 창사로 봄날의 피꼬리를 그리고 있는 정재인데, 이후 오늘날 까지 가장 즐겨 공연되는 효명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춤춘다는 것은 기존의 정재들이 화려한 공연장을 배



〈그림 12〉 순조 29년 기축진찬도병 2

김문식 외(2005)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p.227.

www.kci.go.kr

경으로 기본적으로 공간 대형을 이루는 형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뛰어난 춤 기교와 다양한 춤사위 그리고 복잡한 안무 형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당악정재의 특이었던 의례적인 동작이나 변화 없는 대형으로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한 차원 높은 예술적 수준이 요구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언제나 집단적인 군무로 동일한 동작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정재의 전통과 종래 중국에서 전래한 춤의 구성과 의례적인 동작에 의존하던 경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독창적인 구성과, 춤사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창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동작들이 춤의 예술적 수준을 끌어 올렸다.

효명이 대리 청정하는 기간 동안에 새롭게 정제되고 정비 확충된 정재들을 통해 조선 정재 발전에 기여한 그의 영향력은 단지 중국에서 유래한 당악적 요소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고자 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춤이 중심이 되는 향악 정재의 예술적 장점을 자신의 자유로운 창작정신과 뛰어난 예술 감각으로 강화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 궁중 정재에서 당악적 이상을 완전히 제거 하고 조선의 자주적인 춤의 양식을 만들어내고 춤의 내용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정서와 고유한 예술성을 되살려낸 것은 그의 가장 뛰어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정재의 창작 양식과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조선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완전하게 독자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예술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도 조선조 사상 유례가 없는 전성기를 이루어 조선 궁중 춤의 진경시대를 이룬 자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효명의 이러한 업적은 조선조 궁중 연향의 맥이 거의 끊기고 악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불과 2년여의 짧은 기간 내에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의 존왕 의식과 조선 중화의식에서 비롯된 춤에 대한 열정과 천재적인 재능이 더욱 빛나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만중(2003). 『조선군주의 정치기술』, 서울: 거승미디어.  
 김말복(2003). 『무용예술의 이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_\_\_\_\_(2005). 『우리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명숙(2004). 『19세기정치론연구』,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www.kci.go.kr

- 김종수(2001).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서울: 민속원.
- 박정혜(2000).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서울: 집문당.
- 성경린(1976). 『한국의 무용』, 서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3). 『순조실록』,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성무(1998). 『조선왕조사 2』, 서울: 동방미디어.
- 정옥자(1993). 『조선후기 문학사상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3). 『조선 후기 역사의 이해』, 서울: 일지사.
- \_\_\_\_\_ (1998). 『조선중화사상연구』, 서울: 일지사.
- 지두환(2000).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 서울: 역사문화.
- 최완기(1997). 『조선의 역사』, 서울: 느티나무.
- 최완수외(1998). 『진경시대』, 서울: 돌베개.
-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서울: 민속원.
- 신경숙(2004). 순조조 외연의 한글악장, 『한국시가연구』, 한국시가학회지 15권.
- 유송옥, 이민주(1998). 효명세자 책례, 관례 의식 및 복식에 관한 연구, 『생활과 학』,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권.
- 이종묵(2002). 효명세자의 저술과 문학, 『한국한시연구』, 한국한시학회지 10권.
- 조경아(2003). 순조조 정재 창작양상, 『한국음악사학보』, 한국음악사학회지 31권.

논문투고일	2006년	2월	28일
심사일		3월	3일
심사완료일		3월	20일

## Prince Hyomyung : The Big Patron of Chosun Court Dance

Mal Borg Kim  
*Professor of Danc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ince Hyomyung(1809-1830) was the most artistic, academic and literary king of Chosun dynasty. But most importantly, he was the king of Chosun dynasty who loved dance. Prince Hyomyung was a proxy king(1827-1830) for his ill father king Sunjo(1790-1834), the 23rd king of Chosun dynasty. Before his sudden and mysterious death, he almost accomplished his father's wish to strengthen royal powers and restrain the politically big family in power which was a great threat to the king and its throne at that time.

During his regime, prince Hyomyung used court banquets and court dances as his political medium to uphold the royal authority and to expel his political threat from the court. Before Hyomyung's regime the court banquet was diminishing in its scale and opportunities, but he made the court banquet into a luxurious and complex political ritual to show his policy to honor the king and the royal powers. He held several empirical court banquets and wrote melody and lyrics of the songs and dances performed at the banquets. Therefore, He reestablished the styles of banquet and court dances of the lat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In its process, he expanded the dance repertoire for court banquets and made dance as the focus and flower of the royal banquet culture. Prince Hyomyung made and recreated 26 new court dances for his banquets. This is a great contribution when it is compared with the 53 court dance repertoire danced up to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In the process of making new dances for the banquet, he restored old dances of the Koguryo and Shilla dynasties which was internationally known for its artistry. And he eliminated Chinese style music and dance structure and established an independent style of court dances. Furthermore, he used Korean myths and folk tales as the theme and content of the dances he made. Thus he formed and perfected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of Chosun culture in dance which this writer called it the 'Jinkyung culture in dance'.

**Keywords:** Prince Hyomyung(효명세자), Chosun Court Dance(조선궁중정제), Dance Politics(무용정치), Korean Court Banquet(궁중연향), Dance of the Jinkyung Era(진경시대 춤)

www.kci.go.kr